

### 농진청, 농업기술교육 'e-Learning' 서비스 강화

# 언제 어디서든 수강 가능

#### 고소득 농업경영·농산물가공 등 62과정 개설된 '정규과정'

#### 1~2가지 주제 짧게 학습할 수 있는 '비정규과정'으로 구성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 귀농인 등 농업기술교육을 원하는 국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러닝(e-Learning)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러닝 교육은 개인용 컴퓨터나 이동통신 기기로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누리집(http://hrd.rda.go.kr)에 접속한 뒤 수강할 수 있다.

이러닝 교육은 수료증을 발급하는 정규과정과 수료증 발급이 없는 비정규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정규과정은 고소득 농업경영, 시설원예, 농산물가공 등 62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농촌진흥청은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콘텐츠를 공동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육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비정규 과정은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선별해 공개하고, 1~2가지 주제를 짧게 학습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러닝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공개과정은 사용자가 회원가입 및 회원 들어가기(로그인) 절차 없이 쉽게 콘텐츠를 수강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개선했다.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최상호 센터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워지면서 농업기술교육을 어디에서도 비대면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러닝 콘텐츠를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지난해 당기순이익 4억300만원 실현

### '총자산 1500억원 돌파' 군산제일신협, 지역 선도 금융기관으로 '우뚛'

'감동+진절+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군산제일신협(이사장 박창길·사진)이 지난해 총자산 1,500억원을 돌파하며 당기순이익 4억300만원을 실현했다. 이는 총자산은 전년 대비 25%(302억원), 당기순이익은 37%(1.1억원) 증가한 수치다.



1,5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매년 300억원 이상의 고속 성장을 이뤘으며 군산지역 최고 신협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군산제일신협은 조합원을 위해 친절한 서민 금융 서비스 향상과 신협만의 특화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군산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인은 민인을 위하여 민인은 일인을 위하여'의 신협 정신을 발휘해 지역경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군산제일신협은 2018년 6월 나운동으로 본점을 이전하며 새로운 도약을 선언하면서 그 해 총자산 850억 원을 돌파한데 이어 2019년 총자산 1,200억원 돌파, 2020년 총자산

상생협약을 통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다.

박창길 이사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성원과 사랑을 해주신 조합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의 목표는 조합원들이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일무이한 군산 최고의 서민금융기관이 되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군산제일신협은 코로나19 방역 수칙과 지난 14일 개최된 군산제일신협 제1차 정기이사회회의 의결에 따라, 제33차 조합원 정기총회를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면결의로 개최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21일 본점 19층에서 개최된 '2021년 VM 임명장 수여 및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자산관리 사업 한층 더 강화'

전북은행, VM 임명장 수여·간담회 개최  
지난해에 이어 안골지점 등 6곳 추가 배치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21일 본점 19층에서 개최된 '2021년 VM 임명장 수여 및 간담회'를 통해 자산관리(WM) 사업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은 2020년 7월 이후 본점 PB센터 위주의 자산관리 한계를 벗어나 자산관리 전문인력 VM(Vip Manager, 이하 VM)을 지역금융센터 6곳(영양부, 팔복동지점, 서신동지점, 안행교지점, 익산지점, 군산지점)에 배치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6곳(안골지점, 경원동지점, 효자동지점, 상공회의소지점, 서나문지점, 인화동지점)을 추가해 보다 많은 고객들이 더 편리하게 투자성향에 맞는 차별화된 포트폴리

오를 기반으로 맞춤형 재무설계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전북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고객들의 자산관리 고통을 상당하기 위한 비대면 예약 상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자산관리에 힘쓰는 한편, VM의 정기적인 미팅과 체계적인 연수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에 좀더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북은행 권오진 부행장은 "코로나19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세무·법률·부동산 자문서비스를 통해 전북은행을 찾는 고객에게 종합자산관리 컨설팅을 더욱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NH농협은행 전북본부

#### 화훼농가 돕기 SNS 이벤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21일부터 31일까지 코로나19로 졸업식, 입학식 등 각종 행사 취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SNS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족, 친구, 지인에게 감사, 축하의 메시지와 화훼농가를 응원하는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한국화훼농협의 플라워박스와 메시지가드를 선물로 증정한다.

장기요 본부장은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야 할 때"라며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화훼농가 돕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협은행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nhnonhyupbank)과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nh.nonhyupbank.offici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우체국쇼핑과 연계 온라인 판매전

### 도·생진원, 내달 14일까지 도내 농식품기업 지원

전북도가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춰 우체국쇼핑몰과 도내 발효, 전통, 농식품기업 220여개 사 500여 품목 온라인 특별판매전 추진으로 기업관측 활성화 및 소비자의 명절 준비를 돕는다.

전북도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오프라인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농식품기업을 위해 우체국쇼핑과 연계한 설명절 온라인 특별판매전을 추진한다.

이번 온라인 특별판매전은 설명절을 앞두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각종 오프라인 판매행사 취소, 집합금지 등으로 판로 확보가 어려운 발효식품, 전통식품 및 가공식품 등을 포함한 전북 소재 농식품기업들의 온라인 소비

촉진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획했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지난해 전북의 대표적인 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행사인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를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춘 'e-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로 개최하며 우체국쇼핑, 11번가, 위메프 등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해 약 35억 원의 매출성과와 다양한 온라인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10억 원의 연계성과를 달성하며 코로나 19로 달라진 시장변화에 대응하며 도내 농식품기업을 지원해왔다.

이번 온라인 특별판매전도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도 14개 시군 소재 발효, 전통식품 등 농식품기업 220여개 사를 대상으로 우체국쇼핑몰(mallpost.go.kr)을 통해 2월 14일까지 특별기획전을 구성해 추진한다.

생진원은 프로모션 기간 동안 배너 광고·앱푸시·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전북 농식품 기업들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할인쿠폰(10~30%)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우수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우체국쇼핑몰과 연계한 별도의 쇼핑지원 쿠폰팩과 명절 복주머니, SNS 인증샷 이벤트 등 다양한 추가 판촉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농식품기업들의 판매 확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수 원장은 "이번 온라인 프로모션을 통해 전국의 소비자들이 전라북도의 우수한 농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전라북도 농식품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전북도와 협력해 도내 농식품기업들의 제품개발과 판로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상호금융예수금 500억원 달성'

### 동계농협, 달성탑 수상받아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21일 동계농협을 방문해 상호금융예수금 500억 원 달성을 축하하며 달성탑을 전달했다.

동계농협(조합장 양준섭)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 임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업추진에 매진한 결과 예수금 500억원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전국 최고 품질의 옥광삼 생산을 위해 수종갱신 지원사업을 펼쳐 지난해 200톤을 중국에 수출하는 등 농산물 품질향상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견인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동계농협이 농업인 실익사업 발굴 및 농산물 판매 확대 등 농협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결과"라며 축하했다.

양준섭 조합장은 "상호금융 예수금



500억 달성을 위해 조합원과 고객들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AI 방역 거점소독시설 방역물품 지원

농협 남원시지부와 관내 7개 농·축협은 지난 20일 AI 방역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방문은 전북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중인 고병원성 AI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을 위로하고 지원 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최근 농협은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인 방역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남원시조합운영협의회 의장인 박기열 남원농협 조합장은 "고병원성 AI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확산되고 있는 AI 확진 판정으로 가금류 농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소독과 방역 차단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민간조사 전문기업

# 탐정 法人 해결사

가족 실종자찾기
민.형사 증거조사
개인.가족.기업 고민상담

## 010-5636-7755

## 907호